



미 증시, 우크라이나-러시아간 협상 진전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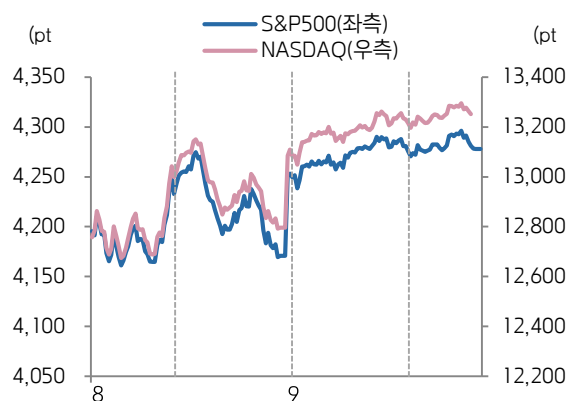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8~9 일 (화~수)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러시아간 협상 진정 소식에 힘입어 상승.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단행에 불구하고, 8 일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 요구 철회에 이어 9 일 국가 중립화 가능성에 열려있다고 하면서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유가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임(다우 +1.43%, S&P500 +1.83%, 나스닥 +3.31%, 러셀 2000 +3.33%).

8 일 (화)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하락 마감. 미국은 이날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제재 발표. EU 국가들은 연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3 분의 2 를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등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 이에 푸틴은 올해 12 월 31 일까지 러시아산 특정 원자재 수출 금지 보복 조치 발표. 유가의 3%대 에너지(+1.4%) 업종의 강세를 이끌었지만, 나머지 업종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확대해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임(미국채 10 년물 금리 12bp 급등, 1.87%). 이날 S&P500 은 장중 저점-1%, 고점 +1.8%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 보임(다우 -0.56%, S&P500 -0.72%, 나스닥 -0.28%, 러셀 2000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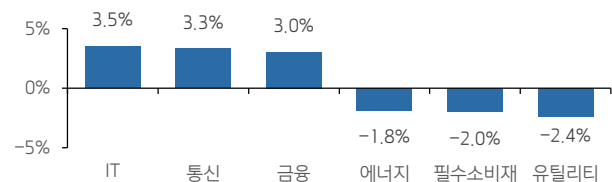
9 일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러시아간 협상 진전 소식에 힘입어 상승. 우크라이나는 전일 NATO 가입 요구 철회에 이어 러시아와 휴전 조건으로 국가 중립화 가능성에 열려있다고 하면서 외교적 협상 타결 기대감 확대. 이와 더불어 UAE 의 원유 증산 지지 표명으로 유가 급등세는 진정됨(WTI -12%). VIX 지수가 7.6% 하락(32.5pt), 미국채 10 년물 금리는 8bp 급등(+1.95%)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는 흐름을 보임. 이날 성장주, 금융주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었으며 뉴욕 3 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다만 장 막판 다음날 미국 CPI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 확대로 상승폭을 일부 축소하며 마감(다우 +2%, S&P500 +2.57%, 나스닥 +3.59%, 러셀 2000 +2.71%).

S&P500 & NASDAQ 8~9일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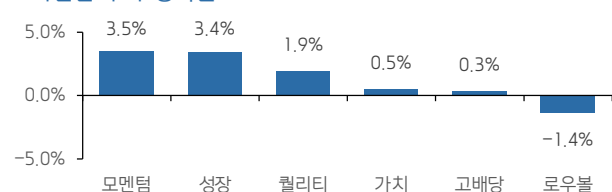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8~9 일 누적)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277.88	+1.83%	USD/KRW	1,234.32	+0.6%
NASDAQ	13,255.55	+3.31%	달러 지수	98.00	-1.3%
다우	33,286.25	+1.43%	EUR/USD	1.11	+1.99%
VIX	32.32	-11.33%	USD/CNH	6.32	-0.08%
러셀 2000	2,016.29	+3.33%	USD/JPY	115.86	+0.47%
필라. 반도체	3,282.18	+5.91%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142.78	+2.36%	국고채 3년	2.280	+8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717	+7bp
Eurostoxx50	3,766.02	+7.23%	미국 국채 2년	1.672	+12.1bp
MSCI 전세계 지수	655.47	-3.51%	미국 국채 10년	1.943	+16.9bp
MSCI DM 지수	2,797.70	-3.41%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96.05	-4.27%	WTI	110.46	-7.49%
MSCI 한국 ETF	70.25	+4.68%	금	1996.8	+0.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3.95%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2.8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8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24.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유럽 증시 폭등, 미국 증시 급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2. 국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동성
3. 20 대 대선 종료 이후 대선 수혜 업종 및 테마주들의 주가 급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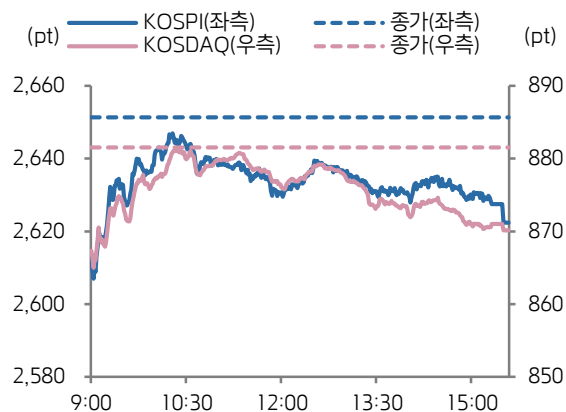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 8 일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조치에 나선 가운데, 러시아도 원자재 수출 금지를 발표하는 등 서방국가와 러시아간 제재 수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 가능한 악재성 재료들이 대부분 노출된 측면이 있었던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현시점에서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 우크라이나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었던 나토 가입을 뒤로 한 채 러시아와 외교적인 협상을 도출하려는 입장. 러시아 역시 서방국가들의 경제 제재 충격의 장기화를 제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조건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9 일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개선시켰다고 판단. 물론 양국간 협상 과정에서 재차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는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 사태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변해갈 것으로 예상.

10 일(미국 현지시간) 예정된 미국의 2 월 소비자물가(예상 7.9%YoY, 전월 7.5%) 발표 이후 인플레이에 대한 경계심리가 재차 확산될 수 있음. 그러나 전거래일 국제유가(-12%, WTI)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안정 가능성 확대, 중국 2 월 생산자물가 둔화세 지속(8.8%YoY, 전월 9.1%) 등을 감안 시 상반기 중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망은 유효하다고 판단. 일각에서는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뉴욕 연은에서 장단기금리차를 활용해 계산한 미국의 경기침체 확률(12 개월 후)은 6% 초반대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3 월 7 일 기준). 해당 확률이 20%대를 상회해야 실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시 우크라이나 사태 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경기침체(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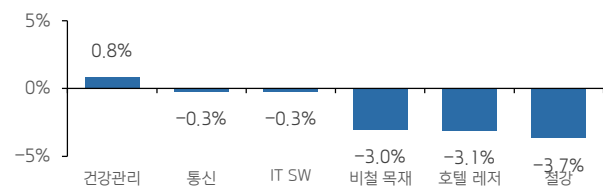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2 월 소비자물가 및 국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경계심리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 기대감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 미국 및 유럽 증시 급등 효과에 힘입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외국인 매도세를 한동안 초래했던 원/달러 환율도 현재 역외에서 10 원 넘게 급락하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인 증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 전반적인 증시 흐름은 긍정적인 전망이나, 20 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으로 확정된 상황 속에서 주요 후보들의 정책 수혜주 및 테마주들의 장중 주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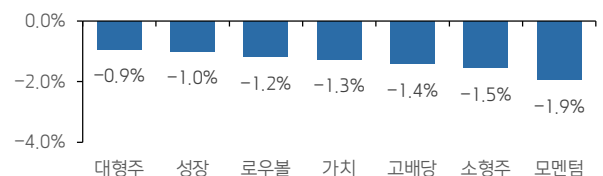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